제주사회복지신문

>2017년 7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17호

제주휠체어농구단 4연패 위업

도지사배 제5회 전국휠체어농구대회 결승서 서울시청에 진땀 승리

제주특별자치도휠체어농구단(이하 제주, 단장 겸 감독 부형종)이 제주도지사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4연패 신화를 썼다.

제주는 지난달 26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제주도지사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서울시청(이하 서울)을 연장 접전 끝에 70-6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제주는 지난 2014년 제2회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모두 우승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제주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상대의 공격 실패에 이은 속공이 성공하며 8-1 점수까지 앞서나갔다. 하지만 서울이 무섭게 추격했다.

1쿼터를 16-12로 마친 서울은 추격에 속도를 붙혀 2쿼터에서 21-21 첫 동점을 만들고, 김철수 선수의 3점슛까지 성공하며 한때 29-32로 앞섰다.

잠시 리드를 내준 제주는 김동현 선수의 돌파에 이은 득점이 연이어 성공하며 2쿼터를 35-32로 리드하며 마쳤다.

3쿼터는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45-39로 제주가 계속 리드한 채 끝났다.

순조롭게 우승을 할 것 같던 제주는 4쿼터에서 연이은 공격 실패와 리바운드 부재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4쿼터 17초를 남기고 60-58까지 쫓긴 제주는 서울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며 60-60 동점으로 연장전 승부에 들어갔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건 제주였다. 김호용 선수의 스틸 성공에 이은 득점과 김동현 선수의 득점 성공에 이은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며 69-65로 달아났고 서울이 3점슛을 성공시키며 한점차까지 추격했지만 70-68로 제주가 승리했다.

이날 MVP를 수상한 제주의 김동현(30) 선수는 "제주 지역에서 열린 대회에서 4연패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번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제주도지사배 제5회 전국휠체어농구대회 결승전 '제주 vs 서울시청' 경기가 지난달 26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4쿼터 58-58 동점 상황에서 제주의 송창헌 선수가 던진 프리드로잉 슛이 골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주 첫 노인취업교육센터 개소

5개 과정 1600명 대상…민간일자리 교육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취업교육센터가 지난 5월 30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사진>**.

이는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취업교육센터 지정 공모 사업에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이 선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제주지역 노인취업교육센터가 유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제주시니어클럽은 올해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고령화에 따른 노인 민간일자리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은 취업교육·특화과정·역량향상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문학·전통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간병인 양성과정, 농가도우미 양성과정, 경비원 양성과정 등이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1,6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은 제주시니어클럽 홈페이지나 제주시니어클럽 취업교육센터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된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고 있다"며 "제주도도 고령화에 대비해 노후자금 준비와 일자리 발굴 등 생산적 노후생활 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면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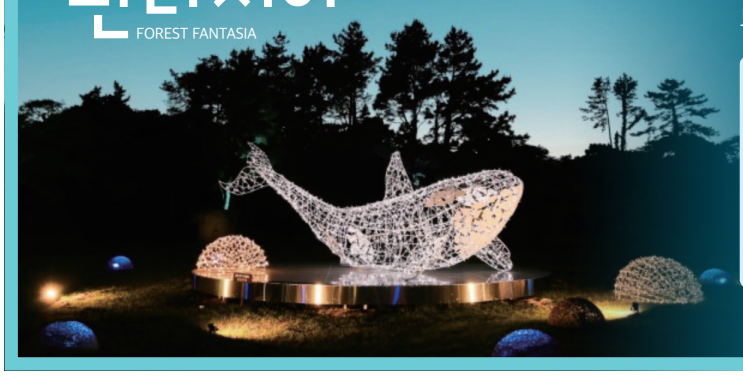
종합 …… 3면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각계 전문가로 위촉

기획 …… 7면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11

사회복지소식 …… 4면
'노란깃발'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확산

기획 …… 8면
시설탐방(88) - 제주사라의집

(주)아라홀딩스
포레스트 판타지아
FOREST FANTASIA



'7월의 문화복지서비스' 안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도내 전시회 및 공연 등의 관람지원을 통해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달의 문화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혜 택** : 포레스트 판타지아 관람료 할인 (제주조각공원 위치)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근무자 또는 근무자와 동행하는 시설 이용(생활)인, 일반 동행인
- **할인가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근무자 1인의 재직증명서를 매표소에 제시
- **할인가 및 적용기간** : 도민할인 + 추가할인 (2017. 7. 31(월)까지)

문의 : T.070-4726-8823, 홍나나 팀장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경로당 보조금 자부담 능력 따라 '부익부 빈익빈'

사회복지시설과 지원기준 달라 형평성 문제 제기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로당 보조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2016 회계연도 결산에서 어르신 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했던 염광아파트 경로당 증축사업이 전액 불용됐는데, 그 이유가 자부담 능력 부족이었다"고 꼬집으며 "자부담 능력이 되는 곳은 경로당을 확충하고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곳은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더 소외되고 있다"며 "행정이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 의원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시설신축 및 개보수' 지원기준도 논란 소지가 있다"며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시설, 영세민 아파트는 보조금을 정액으로 받는 반면, 경로당은 70%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지원 및 보강 지원기준의 경우에도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90%가 지원되는 한편, 경로당은 정액 지원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여가시설이지만, 노인복지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한다"며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 고태순 의원이 지난달 14일 열린 제352회 도의회 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경로당 보조금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주 고령자 친화기업 1호 유치

서귀포시니어클럽 말끄미사업단 국비 3억 받아

제주도는 **서귀포시니어클럽(관장 박재천)** 말끄미사업단이 제주 1호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1일 밝혔다.

고령자 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서귀포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7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억원을 지원받는다.

연말까지 주식회사로 전환해 매년 20인 이상 상시고용, 월평균 보수 125만원을 성과목표로 앞으로 5년간 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총 97개소의 고령자 친화기업을 선정했으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울산시, 세종시에는 선정기업이 없었다.

2009년 설립된 서귀포시니어클럽은 2011년부터 학교, 관공서, 아파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청소와 시설물 관리 용역사업을 하며 매년 일자리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2016년에는 복지부 시장형 사업단 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18개 사업에 총 1천894명의 일자리를 운영한다.

"노인학대 없는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제주도와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달 15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열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사진**>.

이날 캠페인은 노인학대 홍보영상물 상영, 노인인식개선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 사랑의 효(孝) 편지쓰기, '노인학대 ZERO!! 룰렛 퀴즈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며 "주변의 신고와 당사자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눌음지역자활 5년 연속 '우수기관'

수눌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가 정부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전국 23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수눌음지역자활센터가 상위 30% 이내에 들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특히 수눌음지역자활센터는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1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직접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와의 협업체계를 유지하며, 빈곤층의 탈수급과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도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고봉식씨 취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에 고봉식(68)씨가 7월 1일자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12월까지이다.

푸드마켓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6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176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3,335개 ▲금강수산유통=수산물138kg ▲금산서당골=축산물143kg ▲꽃비나리는뜨락=떡369개 ▲김정심=보리쌀180kg,쌀국수90개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398모 ▲대한천리교 대선교회=쌀370kg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64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1,255개 ▲모앙=제과류17봉 ▲미인빵=빵26봉 ▲빠라빠빵=식빵등116봉 ▲신송식품(주)천안공장=장류398kg ▲신화유통주식회사=식재료87개 ▲얌얌영농조합법인=빵128봉 ▲영화식품=식재료33개 ▲이든이네=건멸치18kg ▲자연드림 이도점=빵101봉 ▲제주보리촌=보리빵460개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참치100캔 ▲도개발공사=감귤쥬스200개 ▲캣어클락=식빵12봉 ▲타르타=에그타르트34개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247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560,000	1,300,000
난치병환아후원	55,000	0
자원봉사후원	375,000	375,000
복지사업후원	925,000	1,885,230
푸드마켓후원	3,136,451	104,6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안내 www.jejubokji.net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예전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1동 1112-1)

발행인 : 고치환 편집인 : 고봉식 편집자문 : 김길웅·김범훈·한영조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각계 전문가로 위촉

도민 복지 분야 주요사안 심의·자문 역할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사진>.

임기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기본조례(제6조)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지표에 관한 심의 등 복지행정의 중추적 심의기구로서,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은 관련분야 교수, 도의원, 장애인 시설대표, 요양원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재활원장, 공동모금회 임원등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3명,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5월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19년 6월 11일까지 이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제안과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제주가 살기 좋은 복지1등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 등 민·관이 함께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돌봄 제공인력 역량강화 교육

제주도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의 업무수행 능력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달 7일(제주시)과 14일(서귀포시) 제공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사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보미로 투입되어 가사지원 등을 바우처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최로 정기적 집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예방교육과 치매예방 교육, 노인의사소통 및 상담 등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379여명의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시, 읍·면·동별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2017 건강한 제주 만들기 환경정화 걷기 대회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3일 제주시 화북포구 올레길 18코스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단합행사 프로그램 '2017 건강한 제주 만들기 환경정화 걷기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5개 봉사단체(작은세상봉사단, 온누리봉사회, 좋은인연봉사회, 손뜻모아봉사회, 지역사회봉사단 한바탕)** 봉사자 70여명이 참여해 최근 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수거 활동을 펼쳤다<사진>.

자원봉사연합회 원석철 회장은 "매년 오름 등을 올라 봉사단체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던 것을 작년부터 올레길을 걷고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행사로 바꿔 진행하고 있다"라며 "최근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제주의 청정 해안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푸드마켓에 물품 기탁

'수눌음 벼룩시장' 운영수익금 10% 기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홍석윤)는 지난 14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에 166,500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물품 기부는 지난달 제주도 여성가족과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최한 '2017 가족문화축제'에서 열린 '수눌음 벼룩시장' 운영 수익금 10%로 이뤄졌다.

'수눌음 벼룩시장'은 행복한 육아공동체를 만드는 '수눌음 육아나눔터 품앗이'를 모티브로 했으며, 셀러에는 2가족 이상이 한 팀을 이뤄 총 16팀(102명)이 참여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도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푸레향봉사단,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지역사회봉사단 **고산농협 푸레향봉사단(회장 이덕선)**은 지난달 13일 고산리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 63가구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덕선 회장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만든 밑반찬을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뿌듯하다."라며 "앞으로도 매월 1회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정심 씨, 이웃사랑 물품 전달

작은세상봉사단장 김정심(60)씨는 지난달 21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70만 원 상당의 이웃사랑 물품(보리쌀, 쌀국수 등)을 기탁했다.

남녕고 총동문회 장학금 전달

남녕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홍태욱)는 지난달 19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100만원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제주시내 어려운 청소년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노란깃발’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확산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삼화지구, 제주스마트복지관-한라초 실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노란깃발 사용 캠페인이 도내에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보육분과(위원장 고관용, 분과장 전순심)는 지난달 2일 제주시 삼화지구 내 삼화·도련·삼양초등학교 주변도로에서 어린이 안전 캠페인 ‘노란깃발이 보이면 멈춰주세요’를 전개했다<왼쪽 사진>.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횡단보도 양쪽에 노란깃발을 설치해 어린이가 직접 깃발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같은 날, **제주스마트복지관(상임이사 현성훈)**은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주변 건널목에서 ‘함께 건너요~ 노랑깃발’ 캠페인을 진행했다<오른쪽 사진>.

스마트복지관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백록초등학교 인근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2곳에서 캠페인을 처음 실시했다.

차량이 서행하는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것을 본 한라초 학부모의 설치 요청으로 이번 캠페인을 하게됐다.

중증장애인의 제주 1일 기행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고현수)과 제주도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는 지난 5월 26일 ‘중증장애인의 제주 1일기행’ 행사를 진행했다<사진>.

행사는 여건상 외출 및 여가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반딧불이 동행 봉사단체 등 40여 명이 참여해 송당리 소재 워터서커스 공연관람, 성산 일출랜드에서 수변공원·분재정원·동물원·아열대식물원 등을 구경하고 민속체험을 진행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정진택씨는 “평소에는 엄두도 못 냈던 제주관광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이런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앞으로 더 많은 관광지를 경험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의 1일 기행은 개인 사업을 하는 강정필씨의 후원으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내일키움통장’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큰 힘

취·창업 성공 시 정부매칭금 등 최고 3배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 소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49세)가 지난 1월 취업에 성공해 내일키움통장 지원금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매달 10만원씩 적립했다. 18개월 동안 적립한 본인 적립금 180만원에 각종 지원금이 매칭되어 총 620여만원을 받는다. 또 다른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인 B씨(46세)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본 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해 본인적립금 190만원을 포함한 총 4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적금형태의 자산형성지원제도로, 3년동안 가입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취업 및 창업 등 자활에 성공하게 되면 본인의 적립금에 각종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추가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게 된 A씨는 “그동안 꿈을 향해 노력해온 것에 보답 받는 것 같다”고 말했고, B씨는 “앞으로도 내일키움통장 제도가 활성화되어 본인과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주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3년도부터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1명이 가입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직능단체장 간담회 열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최영현, 이하 인력개발원)은 지난달 13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직능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표하는 직능별 사회복지단체장들과 함께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력개발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최영현 원장은 “교육 참여가 어려운 복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개설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수련대회 개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도협회(회장 문성은)는 지난달 16일 사라봉다목적체육관에서 도내 5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수련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제주도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도내 5개 장애인복지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종사자 간 친목도모와 화합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뉴스포츠 플로어볼, 킥런볼, 킨볼 등의 친선경기를 진행하며 제주사회 건강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손 끝으로 전하는 ‘행복 드리미’

주사랑소규모요양원(원장 한영희)은 지난 4월부터 시설 내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프로그램 ‘손 끝으로 전하는 행복드리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이 사업은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을 통해 평소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도자기 공예와 다양한 칠보 공예를 손수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성취감이 매우 높으며,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식/마/당

가족한마당 잔치

제주케어하우스(원장 홍영진)는 지난 5월 20일 첨단과학단지 내 근린공원에서 '가족한마당 잔치'를 실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용자·보호자·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레크리에이션, 가족 편지 쓰기,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Get up 오감꿈틀'

행복한쉼터(원장 김영미)는 카카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지원을 받아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Get up 오감꿈틀' 인터넷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진행한다.

성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과 다양한 감각자극을 통해 개인의 성취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

좋은이웃들 자원봉사자 발대식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 5월 25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좋은이웃들 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기초교육을 수료했다. '좋은 이웃들' 자원봉사자는 통·반장, 부녀회, 가스검침원 등 지역을 잘 아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한다.

"보드게임 통해 창의력 키워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청소년이 있는 장애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창의적 보드게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의 지도로 게임을 통해 상대편에 대한 관심·협동·협상 활동을 수행하고 창의력과 사회성을 향상키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해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린정원에서 뚝딱뚝딱'

정혜재활원(원장 이홍기)은 지난 3월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그린정원에서 뚝딱뚝딱' 목공교실시즌2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목공교실은 거주장애인들이 목재 종류, 공구 사용법 등을 배우며 매주 정해진 작업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다. 집중력·성취감을 고양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 충전에 목적이 있다.

활력 충전! 나들이 행사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5일 제주은행 동문지점(지점장 오정훈)의 후원으로 주간보호어르신 '나들이 행사'를 다녀왔다.

행사는 에코랜드 숲 속 기차여행과 함덕해변 산책으로 진행됐다. 조영숙 관장은 "바깥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력을 충전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후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당당한 울림'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제주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아 오는 12월까지 '당당한 울림' 사업을 실시한다.

중증성인여성장애인들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관계형성, 문화체험, 성폭력예방·인권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으로서 본인의 삶과 의견을 표현하는 자기주장발표대회도 참여할 계획이다.

자립재활여행 프로그램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동안 '자립재활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거주장애인과 직원 등 40여 명이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역사문화지를 관광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송죽원 관계자는 "거주장애인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마음밭 가꾸기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문정신)는 다음카카오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관하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지원 사업 '마음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원예 활동과 푸드 테라피를 접목해 긍정적 자아 발견과 다양한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심리정서지원을 제공한다.

'나는 파티플래너'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지원으로 성인발달장애인 직무개발프로그램 '나는 파티플래너'를 지난 5월부터 실시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파티플래너(파티기획, 초대장 및 안내장 제작 등), 파티스타일리스트(데코아트, 답례품 제작), 케이터링디렉터(쿠키 및 차 외 다과 만들기) 3개 부분으로 나눠 직무개발 교육을 제공한다.

아르브뤼 작품전시회 개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이중섭창작스튜디오에서 '꿈을 향해 크는 아이–아르브뤼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지원을 통해 그림을 좋아하는 장애아동 10명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 간 미술교육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만든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장애인가족 교통문화 체험활동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박영재)는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지원을 받아 지난달 16일~17일 1박2일 '장애인가족 교통문화 체험활동' 을 실시했다.

장애인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체험하며 사회참여·문화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장애청소년 자녀를 둔 26가정 55명이 참여해 가평일대 호명호수, 남이섬 등을 방문했다.

시론

경계의 저편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귀국했다. 삼성의 불법적 승마후원, 이화여대 특혜입학 등 '적폐'란 것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쉽게 각인시켜 준 인물, 결국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탄핵을 야기한 수혜자가 귀국한 것이다. 검찰은 바로 구속수사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두번이나 영장을 기각했다.

'국민다수의 법 감정은 구속일 텐데 '왜 안 되지, 뭔가 있나' 하는 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되고 양육해야 할 아이도 있지 않나'라는 온정적 의견도 소수 있다. 여기서 국민의 경계심이 일어난다. 경계심간 의견은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치에게도 인간주의는 작동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계적 법치가 아니길 바란다.

저마다의 '경계'

'경계'라는 단어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境界)', '옳고 그른 경위가 분간되는 한계(經界)',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함(警戒)'이라는 서로 다른 뜻도 있지만 유사함도 지닌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계(기준)를 갖고 있으며, 그 경계에 따라 저마다 경계(시비 판단)하고, 저마다의 일에 대해 경계(설득)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저마다의 기준에 따른 시비 판단과 그 판단에 의한 상대의 설득. 이때의 기준이라는 것은 저마다의 경험, 저마다의 지식이나 그 밖의 어떤 것 등에서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저마다이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옳지 않은 일에 대해 타이르고 주의하는 것이기에 윤리적이며 사회적이기도 하다. 그 윤리적 경험이 촛불혁명이다. 최초의 촛불은 적었지만 그 다음 촛불의 힘이, 그리고 그 다음의 촛불은 국민 서로를 설득하여 희망을 담은 결과물을 얻지 않았던가. 지속된 촛불은 태극기집회에서의 야구 방망이나 죽창이 아니라 나비 스티커의 힘으로 국민의 공감을 넘어서 전 세계의 공감과 동의를 얻었던 것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평화로우며 축제와 같은 명확한 기준, 그 기준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계의 기준을 집단 지성이 설정해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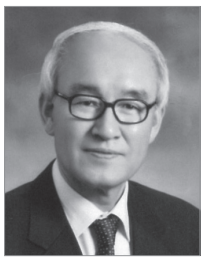
상대를 설득하는 '경계'

그렇다면 명확한 그 하나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답은 나와 있다.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경계의 저편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계의 저편에서 바라본 풍경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태극기와 검은 선글라스와 군화, 방망이와 죽창을 들었던 격한 자들이여. 경계의 저편으로 나아가보라. 태극기를 어디에서, 어떻게 휘날려야 상대를 설득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다.

고 현 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기고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 임기를 마치며...



고 경 윤
도사회복지협의회 전)상근부회장

지난 2005년부터 맺게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의 인연이 어느덧 10년에 이르러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릴 방법을 찾던 차에 이 귀한 지면을 빌어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2막의 시작이나 다름없었던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으로서의 재직기간은 실로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물론 그 빛은 사회복지현장 곳곳에서 우리 사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많은 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회복지 용어조차 낯설어 했던 제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나마 사회복지현장에서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신 사회복지가족 여러분의 성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많은 순간들이 떠오르지만 전국 최초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건립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 사회복지행정실무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회계업무 등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었던 점은 저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기억들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소중하게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복지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이 곧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좌우하고,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책임감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수준을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 한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세를 사회복지현장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인식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사회복지현장 가족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지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사회복지현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후원인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럼

고흥 팔영산은 삶의 굴곡과 닮다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팔영산을 찾은 날은 지난 5월 16일이다. 여덟 개의 암릉이 굴곡을 이루며 나란히 서 있는 산이다. 들머리에는 팔영산 안내판이 커다란 대문처럼 우뚝 서 있다. 마치 큰 대궐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흥분되고 떨린다.

경사진 길을 걷고 걸어 1시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봉우리인 유영봉 선비가 반긴다. 처음 만나는 선비는 당당한 풍채 그 자체다. 천년의 요새 아름다운 성을 지키고 서 있는 선비의 늠름한 모습이다. 선비와 인사하고 나서니 내리막 절벽이 앞에 놓여 있다. 가파른 절벽. 철계단을 힘겹게 기어오른다. 곧이어 제2봉인 성주봉 선비와 조우한다. 성주봉 선비는 나에게 남해의 거대한 다도해의 파노라마를 보여준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본다. 저 너머로 제3봉인 생황봉 선비가 빨리 오라고 손짓한다. 가는 길에는 지난 시간 할 일을 마친 이름 모를 꽃이 바닥에 떨어져 시들어가고 있다. 굴곡이 뒤안길을 그려본다. 어느새 다다른 생황봉. 열아홉 대나무통 관악기 모양인 생황봉 선비는 불어오는 바람으로 하모니를 선사한다. 가만히 바위에 앉아 잠시 하모니를 듣는다. 구름도 능선을 타고 논다.

삶의 출발과 끝이 있는 팔영산

무한정 머물 수는 없다. 앞에 펼쳐진 제4봉인 사자봉으로 자리를 옮긴다. 동물의 왕자인 사자처럼 생긴 선비다. 절묘한 조화인지 제4봉에서 제5봉인 오로봉까지의 거리는 짧다. 거의 붙어 있을 정도다. 가는 길이 쉽다. 쉬운 것도 잠시 곧바로 이어지는 암릉 절벽. 제6봉인 두류봉이 눈앞에 버티고 서 있다. 몸이 흔들린다. 아찔하다. 철계단 쇠사슬을 힘줘 붙잡는다. 아래를 볼 수 없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라고 했던가.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통천문이 있다. 사방팔방 고흥내륙이 한눈에 들어온다. 모든 것이 발아래 있다.

넘고 넘어 제7봉인 칠성봉에 와 있다. 지나온 고갯길이 힘들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를 내주는 곳이 칠성봉 선비다. 제8봉까지 가는 길 사이에 작은 숲 쉼터가 있다. 마지막 남은 제8봉에 가기 전에 따뜻한 배려의 선물이다. 별자리도 쉬어가는 칠성바위이다.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암릉인 제8봉 적취봉을 넘는다. 여덟 명의 선비와 아쉬운 해우를 한다. 그리고 8개의 봉우리가 일렬로 서 있는 전체의 모습을 지켜보는 깃대봉(608m)을 끝으로 팔영산을 뒤로 한다.

한 영 조
산림치유지도사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⓫

조 성 태(55)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요”

아라동 지역사회복지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아라동지역은 최근 몇 년 새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제주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몇 지역 중 한 곳이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사람이 모여들면서 마을이 시끌벅적해졌다. 실로 눈깜짝할 사이의 변화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웃들의 삶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25년째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로 출근하고 있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조성태 관장을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열 한 번째 인물로 만나 보았다.

연고가 있었던 부산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었던 그는 부산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사회복지학과를 1지망 학과로 선택했다. ‘개척적이고 미래에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학과 소개자료에 눈길이 끌린 이유다.

졸업을 앞두고 1년간 휴학생활을 하던 중 대학 조교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금은 ‘월드비전’으로 명칭이 바뀐 ‘선명회’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응모해 보라는 것. 다행스럽게도 1989년 6월부터 ‘선명회’에서 사업장을 새로 시작하는 ‘부산 남부민 가정개발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가정개발사업’ .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과 결연을 맺고 장학금이나 의료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공부방운영 등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였다.

“제가 담당한 동네가 워낙 산동네인지라 처음에는 올라도 올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에 겁을 먹고, 좁은 골목길에 답답하리만큼 붙어 있는 하나같이 비슷한 집들 때문에 방문할 곳을 헷갈리기도 하며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밥도 얻어 먹으면서 지역주민들과 정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당시 골목길과 이웃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는 20대 청년 조성태의 모습 그대로였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당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강정금 선배의 제안을 받아 협의회 지역복지봉사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마무리 하게 된다. 1991년부터 근무를 하게 된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업무는 자원봉사업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자원봉사회 활동을 돕는 일이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주시 아라동 아라주공아파트 단지 안에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1992년 8월 1일)한다.

제주에서는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마침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관 사무실 한 켠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다.

▲ 1997년도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과장으로 ‘제주전문대 가정관리과 산학협동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사가 부족해서 직원 수도 몇 되지 않아 협의회 직원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업무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죠. 개관 초기에 운영법인과 복지관이 한 몸이 돼서 지역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애썼던 노력들이 여러모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25년 동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첫 출발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그였기에 역시나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가 해야 할 역할이 있었다. 그렇게 그는 1996년부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시작해 어느덧 20년 동안 아라동 사회복지현장의 터줏대감이 되었다.

▲ 2007년도 지역주민들 대상 시행한 자활근로사업에서 배추 수확 후 기념촬영 모습.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람으로 느끼는 일들은 차고 넘치겠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기억은 지금의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개관의 씨앗이 되었다고 믿는 ‘이동복지관’운영(중앙공동모금회 기획사업), 근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활을 돕는 ‘자활근로사업’ , 방과 후 돌봐줄 가족들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야간보호사업’이다.

복지관장으로서 그의 계획 못지않게 사회복지사 조성태의 포부를 물었다. “복지관 근무 초기에 하반신 장애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지역주민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치료를 다닌 적이 있어요. 병원도 2층이어서 그 분을 업고 다녀야 했죠. 뻔한 가정형편인지라 원장님께 부탁해서 진료비 부담도 덜어드리기도 했죠. 하루는 연세가 지긋하신 그 분의 어머니가 저의 집을 여쭤봐서 아무생각 없이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 길에 저희 집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보따리를 풀어 내놓는 것이 쇠고기와 돼지고기였어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준 것이 고마워 그렇게라도 보답을 해야겠다는 거였죠.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며 겨우 달래고 설득해서 그냥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에 힘들때 마다 그 장면을 떠올려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회복지를 하는지 말이죠. 제 역량으로 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역량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진심을 다 하자. 그것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그런 초심에 충실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 2002년도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0주년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한 기념사진.

지난 해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 손님이 찾아왔다. 조성태 관장이 업고 치과를 다녔던 장애인분이 육지부에 있는 시설에서 생활 하다가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것. 사람에 대한 진심은 늘 진심으로 보답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30여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회복지현장을 지키고 있는 조성태 관장의 ‘진심복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리 - 김성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위 기사의 전문은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내 제주지역복지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탐방 ► (88)제주사라의집

생태적 회개의 삶 사는 작은 공동체

신앙 생활 속에서 편안한 노후 제공 힘써

▲ 제주사라의집은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현재 29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시설탐방은 제주시 화북2동에 위치한 **제주사라의집(원장 이상호, 이하 사라의집)**를 찾아갔다. 시설 입구에 들어서자 보이는 성모마리아상이 가톨릭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을 말하고 있었다.

이상호 원장은 사라의집 설립 배경에 대해 "도내에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 늘어났지만 제주시내 가톨릭요양원이 없어 가톨릭 신자임에도 타종교 요양원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노년을 기쁨 속에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3년 4월 축복식을 통해 설립됐다"고 말했다.

4층 건물의 사라의집은 1층에는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등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실이 위치해 있었다. 또한 4층에는 경당이 있어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 있고, 평일미사와 주일미사 등 천주교 행사가 진행되어 가톨릭 신자가 불편없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라의집 이용 정원은 29명으로 현재 남자어르신 7명, 여자어르신 22명이 이용중에 있어 신규 입소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용을 원하는 대기자가 30여명이 넘는다.

사라의집 운영의 사업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상호 원장은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라고 정의내렸다.

이를 위해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작은 소리, 작은 몸짓, 작은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사라의 집은 이용인의 숨은 강점을 찾아내고 키워가며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작은 공동체를 구현한다"고 말했다.

사라의집이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에 힘쓰고 있다"며 "오일장 나들이, 지역사회행사 참여, 2주마다 열리는 사라의 이동매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옛 추억을 되살리고 치매와 같은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사라의집을 아끼며 도움주시는 자원봉사자님"이라고 답했다.

사라의집을 찾는 자원봉사자는 매월 20여개 팀 250여 명이 넘는다. 사라의 집 텃밭을 관리하고 월 1회 공연을 펼치는 '참사랑봉사회'와 과수원을 관리해 주는 '다미안회' 등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사라의 집을 찾아 자신의 재능을 나눠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사라의집의 장점이자 자랑"이라고 말했다.

운영의 어려움 점을 묻는 질문에 이상호 원장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답하며 "자세한 사항을 얘기하긴 힘들지만, 어르신 29명인 소규모 요양원에 2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며 "요양등급에 의한 급여만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라의집이 추구하는 비전 및 포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상호 원장은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사라의집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자도 30여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분들을 다 모실 수는 없으나 건물 증축을 통해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사라의집에 모셔서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으며 하느님 보시기에 기쁜 평화의 소공동체 안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43

업무상 주의의무

황 인 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와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경 한 요양원에 입소중이던 노인이 불행하게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노인은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방문한 손님이 가져온 떡을 먹다가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됐다.

◆ 사망 사고에 대한 판결

손님은 요양원에 입소중인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시 간식으로 떡(백설기)을 준비한 것이고, 노인들 모두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를 방으로 가져와 먹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양원 직원으로 근무중이던 담당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 불행한 사고에 대해 직원들에게 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법원은 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형사처벌을 결정했다. 이 사안에서 직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모든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노인이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담당 직원들이 잘 알고 있었다(혹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손님이 환자에게 간식으로 '떡' (백설기)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노인에게는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떡'이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최선을 다해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업무 태도가 위 사례와 같은 불행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때로는 사회복지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분야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기대가 큰 만큼 대우와 지원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